

제1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오민

연평근

Étude

Oh Min

THE
17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1997년에 설립된 이래 예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을 기울여 온 에르메스 코리아는 지난 2000년 한국의 역량 있고 창의적인 젊은 작가들을 발굴 후원하고자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제정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는 한 차례의 추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후 전시와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2003년 4회부터는 5명의 추천위원이 선정한 10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5명의 심사위원이 수상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이들의 신작 제작을 지원하고 전시를 개최한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보다 공정한 심사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2008년에는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에르메스'와 '미술상' 사이에 '재단'을 더해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16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부터는 최종 후보자 3인을 선정하고 전시를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국내외 심사위원이 1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 후 개인전을 개최하는 방식(격년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좀더 집중적으로 국내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했습니다. 수상자는 4개월간의 파리 레지던시 체류와 작품 제작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프랑스인 심사위원/멘토를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미술계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본인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환경과 새로운 자극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후, 수상자는 신작으로 구성된 전시를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7, Hermès Korea has been devoted to bringing art closer to the public and so in 2000 created the Hermès Korea Missulsang, which means Hermès Korea Prize for Contemporary Art, to discover and support influential and creative young artists in Korea.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the award winner was chosen through a one-step nomination and judging process, which was followed by an exhibition and award ceremony. Since its fourth year in 2003, a more equitable judging process was introduced. Under the new system, a five-member nomination committee selects ten artists, from which a five-member judging committee selects three nominees. These three nominees receive funding to create new works to be shown in an exhibition and the final award winner is decided following the exhibition by the same judging committee. In 2008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Hermès Foundation) and, in an effort to emphasize the original purpose of Atelier Hermès, while also raising its international profile, the word "Foundation" was inserted between "Hermès" and "Missulsang" marking the award's rebirth under the new name of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Celebrating its 16th anniversary in 2015,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became renewed once again, awarding the winner once in two years and launching a mentor system along with a residency program. Among ten artists recommended by a five-member nomination committee, only one artist is elected as a winner through the interviews and meeting by a four-member judging committee including a French mentor. The winner has opportunity for a four-month residency at the 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in Paris. During this period, the beneficiary can accumulate the consistent network with European art field and enlarge one's interests under the help of the mentor. The following year, a solo exhibition of new art works is to be held at Atelier Hermès, while supported the production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인사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기록적인 무더위 소식이 물러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격년으로 한국의 9월은 굼직한 미술계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포진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두가 고대하는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도 자리합니다. 2000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으로 시작한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이 어느덧 1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1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오민 작가는 에르메스 재단의 후원으로 파리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기회를 갖게 된 두 번째 수혜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피아니스트로 교육받았던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음악의 구조를 자신의 영상 작업에 대입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온 오민 작가는 쓰거웠던 지난 여름 내내 파리의 몽마르트르 작업실에서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보여줄 신작을 구상하고 제작하였습니다. 4개월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가들과 교류했던 경험이 이번 전시에서 어떤 결과로 보여질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1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오민 작가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이번 수상 및 전시를 계기로 작가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미술상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과 심사위원직을 흔쾌히 맡아 주신 서울대학교 오인환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원 교수님, 파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오민 작가의 멘토이기도 했던 가엘 사르보 독립큐레이터님, 마지막으로 에르메스 재단의 까뜨린느 츠키니스 디렉터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술상의 위상을 고려해 좋은 작가들을 추천해주신 2012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구동희 작가님, 김해주 아트선재센터 부관장님, 이진아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님, 호경윤 아트저널리스트님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한승현, 에르메스 코리아 사장

Foreword

News of the record-breaking seemingly endless heat wave has finally waned and we are now crossing the threshold of autumn. Every other year, September in Korea boasts various big art events nation-wide. Among them,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s eagerly anticipated by many. The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which had begun in 2000 as Hermès Korea Missulsang celebrates its 17th anniversary already. Time flies, indeed.

The winner of the 17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Oh Min, had participated in the Paris residency program supported by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and had the grand opportunity of holding a solo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as a prize. This is the second case of beneficiary of such programs. As the artist had been educated as a pianist for a long time, Oh has incorporated the structure of music in her video works based on this unique résumé. Having established a new structure of creation of her own, she has spent last summer in the heat of Paris at the studio in Montmartre planning and creating her new works to exhibit at Atelier Hermès.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viewing the result of the four-month experience of exchanges with artists of diverse background in a new environment in this exhibition.

Once again,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winner of the 17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Oh Min, and I hope this award and exhibition would be a stepping stone for her great and illustrious future career.

Last but not least, I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everybody who has worked hard for this year's Missulsang, and the Judging Committee members who had willingly welcomed their job: Oh Inhwan, artist and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Sungwon,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ependent curator Gaël Charbau who had been the mentor of Oh Min during the Paris residency program; and finally, Catherine Tsekenis, Director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the Recommending Committee members as well for their marvelous recommendations considering Missulsang's status: Koo Donghee, artist and the winner of the 13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Kim Haeju, Deputy Director of Art Sonje Center; Lee Gina, Assistant Curator of Samsung Museum of Art, Leeum; and art journalist Ho Kyoungyun.

— Han Sung Hun, Managing Director of Hermès Korea



음악에서 보통 '연습곡'으로 번역되는 '에튀드'는 '연구' 또는 '습작'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대개 음계, 아르페지오, 옥타브, 겹음, 트릴 등 어떤 기교를 위해 작곡된 악곡을 일컫는다. 기술 수행이라는 특정한 측면을 개발하고 연주자의 연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이 짧은 악곡을 20세기의 작곡가들은 작곡 기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연습곡은 무대 위에서의 단 한 번, 완벽한 연주를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으로, 이 연습곡을 반복하는 지난한 시간의 연속들은 순간의 완벽을 내면화한 연주자가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외로운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까닭에, 연습곡에는 '연습'과 '최종'이라는 개념이 공존하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시간에서 동시에 발현된다. 제17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수상자인 오민이 선보이는 새로운 시도는 바로 '연습곡'이라는 장르가 가진 이러한 양가적(兩價的)인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완벽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도달할 수 있다는 듯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에서 강인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지만 "그 순간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오민은 그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 하는 동력"의 근원에서 '불안'의 감각을 마주하곤 한다.¹ 지극히 절제되고 간결한 영상과 퍼포먼스를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 인간들이 발전시켜온 기술—예측하기, 계획하기, 정리하기, 훈련하기—에 주목해온 작가 오민의 관심사가 '연습곡'이라는 음악의 오랜 관습을 향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이 '연습곡'을 화두로, 오민은 두 개의 싱글 채널 비디오 연습연(練習演) A와 연습연 C, 5채널 비디오 연습연 B,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 연습연 D로 구성된 전시 연습곡을 선보인다.²

이번 프로젝트 연습연 ABCD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언가를 '인식하는 기술'의 연습을 제안한다. 인식한다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기 위해, 오민은 인식과 관련된 공간과 시간, 보는 것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단계를 나누어 구조를 짜고, 여기에 인물, 장소, 행동, 장면, 인과, 시간, 형태, 빛, 앵글 등을 정교하게 엮어 하나의 구성을 만들었다.³ 이렇게 제안된 연습연 A는 지금, 여기를 보는 기술을, 연습연 C는 생각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기술을 연습하기 위한 연습연이다. 연습연 A를 구성하고 촬영하기 위해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한 연습연 B는 연습연 C의 '연보(演譜)'⁴이며, 따라서 연습연 A의 연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연습연 D는 연습연 A와 연습연 C의 기술을 동시에 연습하는 라이브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제안된다.⁵ 결과적으로, 연습연 ABCD를 구성하는 연습연 A, 연습연 B, 연습연 C, 연습연 D는 각각 독립적인 동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연작을 이룬다.

부연하자면, 연습연 A에서 공연자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열두 개의 무언가—예를 들면, 나무와 숲, 건물과 벽, 거리의 사람, 눈앞의 불빛 등—를 보는 기술을 연습하는데, 이 공연자가 무언가를 보는 열두 개의 장면을 구성하기 위한 스케치와 지침을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것이 연습연 B이다. 이 연습연 B는 연습연 C에 등장하는 공연자를 위한 일종의 '연

A French word, "étude," used as an instrumental musical composition, means "study" or "a piece of work for practicing." It is widely adopted for techniques, such as scale, arpeggio, octave, double notes and trill, whose principal aim is the development or exploitation of a particular aspect of performing technique and enhance a performer's skills. The term étude was also used as a title by some 20th-century composers, usually to indicate a piece exploring a specific aspect of the composer's craft.² It is a must-have procedure to ensure a one-time perfect performance on the stage, and continuum of repetitive and challenging times is a performer's solitary journey of endlessly looking back on him or herself that perfectly embodied the perfection of the very moment in his or her space. It is why an étude has the coexistence of "practice" and "finality," and "the past" and "the future" are represented at the "present" time. The new attempt introduced by Oh Min, the winner of the 17th Hermès Foundation Missulsang, is derived from such ambivalent attitudes found in the genre of "étude."

Oh Min said, "I feel both strength and vulnerability in the course of practicing again and again as if to reach perfection, although I know I cannot," but "the moment of doing so is very beautiful." She sometimes encounters a sense of "insecurity" at the source of "power to drive her to run towards the unreachable."³ It seems inevitable that what Oh Min is interested in, who has paid attention to the techniques that humans have developed to adjust and control such sense of insecurity—estimating, planning, organizing and training—through utterly refined and succinct films and performances, goes to an "étude"—a seasoned practice of music. With this "étude" as the starting point, she introduces two single-channel videos Étude A and Étude C, a five-channel video of Étude B and a live performance of Étude D.

This project Étude ABCD proposes practicing a "technique of awareness" during a performance. In order to crystallize her awareness into specific actions for practicing, Oh Min configu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pace and time of the awareness and the act of seeing, weaves a structure by stage, and forms a single composition by sophisticatedly connecting figures, places, behaviors, scenes, causality, time, forms, light and angles.⁴ Étude A proposed as such is an étude to practice a technique to see the present and here, and Étude C is to practice to see the past and the future within thoughts. Étude B which is based on the materials compiled to configure and shoot Étude A is a score for Étude C, thus serving as a score for Étude A. Lastly, Étude D is proposed as a form of a live performance to practice the techniques of Étude A and Étude C at the same time.⁵ Eventually, Étude A, Étude B, Étude C and Étude D which comprise Étude ABCD form a single series by being closely connected to one another, while being individually independent.

More precisely, the performers in Étude A practice the technique of seeing twelve things that exist outside themselves, such as trees, a forest, buildings, a wall, people on the street and light in front of their eyes. It is Étude B that is comprised of five chapters, covering sketches and directions to form twelve scenes where the performers see something. Étude B functions as a

연습연 A Étude A
2018, Single-channel video & 4-channel sound, 10 minutes (sync with Étude C)
Performer: Olivia Liroet, Tess Maliczak, Sabine Riviere

1. 2017년 바자 5월호에 실린 박수진과의 인터뷰 "오민의 스코어" 참조.
2. '에튀드'는 일반적으로 '연습곡'으로 번역되지만, 오민은 작업의 맥락에 따라 '연습곡', '연습무(練習舞)', '연습연(練習演)' 등의 명칭을 유연하게 활용한다.
3. 오민은 인식 기술의 연습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식의 단계를 관찰, 인지, 기억, 상상, 구성, 예상, 판단으로 구분했다.
4. '악보'를 의미하는 '스코어' 역시 '연습무', '연습연'의 맥락적 활용에 따라, 편의상, '무보(舞譜)', '연보(演譜)'를 활용하고자 한다.
5. 연습연 D는 9월 5일 전시 개막 당일에 안무가 최승윤의 퍼포먼스로 공개된다.

1. To the Stars through Difficulty
2. See Oxford Music Online, <http://www.oxfordmusiconline.com/search?q=etude&searchBtn=Search&isQuickSearch=true>, 2018, 8, 28.
3. See Oh Min's interview published in Harper's BAZAAR Korea (May, 2017).
4. In order to convert practicing the technique of awareness into specific actions, she distinguished the stages of awareness into observing, perceiving, recollecting, imagining, planning, estimating and making decisions.
5. Étude D is disclosed as a live performance of choreographer Choi Seungyoon on the exhibition opening day of September 5.



연습연 C Étude C
2018, Single-channel video & 2-channel sound, 10 minutes (sync with Étude A)
Performer: Sabine Riviere

보'로 가능하고, 연습연 C의 공연자는 자신의 내부에 연습연 B가 지시하는 상황을 떠올리거나 연습연 B를 바탕으로 가상의 공연을 구상하는 기술을 연습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물리적 공간을 보는(관찰, 인지)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연습연 A이고,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 만든 연보가 연습연 B이며, 이 연습연 B를 바탕으로 생각의 공간에서 과거의 이미지를 보거나(기억) 미래의 이미지를 보는(상상, 구상, 예상)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연습연 C이다. 그리고, 연습연 A와 연습연 C, 연습연 B가 함께 보여지는 전시장에서 공연된 연습연 D에서 공연자는 물리적 공간과 생각의 공간을 동시에 보면서 결정을 내리는(판단) 기술을 연습한다.

이렇듯 정교하고 아름답게 짜여진 연습연 ABCD의 치밀한 열거는 오민이 긴밀하게 구축해놓은 내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연습연 A와 연습연 C가 나란히 맞물려 돌아가고, 이 두 개의 화면에 등장하는 미세한 표정과 행동의 변화들이 지시하는 바를 읽어낼 수 있는 뼈대를 제공하는 연습연 B가 반복되는 전시장에 면밀하게 자리잡은 일곱 개의 육면체는 잠재적인 공연자의 존재를 가정한다. 언어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구제적인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장면들이 콜라주처럼 이어지는 오민의 영상에서 관람객들이 포착하게 되는 것은 클로즈업된 얼굴에 미묘하게 드러나는 '생각의 표정'이다.⁶ 현재의 물리적 공간을 보거나 생각의 공간에서 과거나 미래의 이미지를 보는 공연자의 얼굴에 시시각각 드러나는 생각의 표정은, 흥미롭게도, 영상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의 표정에서도 희미하게 반복된다. 이 순간, 관람객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적인 공연자가 되어 오민이 제안한 인식의 기술을 연습한다.⁷ 춤 춤하게 계획된 오민의 세계 주변으로, 이렇게, 뜻밖의 관계망들이 느슨하게 더해진다.

다시 연습곡으로 돌아가보자. 예술 작품은 시대의 산물이고, 이 예술 작품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을 읽어낼 수 있다. 연주자들과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연습곡 역시 마찬가지다. 악기와 관계하는 신체의 한계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연습곡을 통해 작곡가들이, 나아가 각 시대가 연주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시대의 흐름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다. 연습곡을 화두 삼아 인식하는 기술의 연습을 제안한 오민의 실험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게 된다. 연습연 ABCD를 통해 인식의 기술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식하는 기술의 연습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인식하기 위한 것인지, 인식하는 기술의 연습을 통해 잡아내고자 했던 이 시대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민이 끝끝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말이다.

— 김윤경

6. 오민은 자신의 전작(前作) 관객(2017)과 공연자(2017)를 통해 이 '생각의 표정'에 관한 논의를 끌어낸 바 있다.
7. 물론, 모든 관람객이 잠재적인 공연자가 되어 인식의 기술을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잠재적인 공연자가 인식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연습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연습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로 이율배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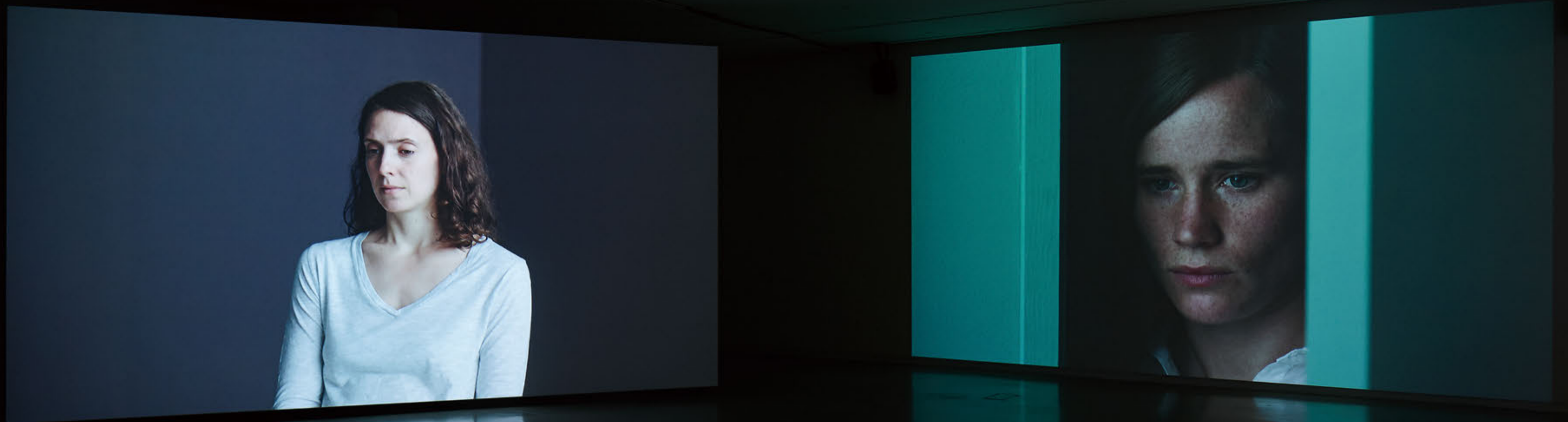
"score" for the performer that appears in Étude C, and the performer in Étude C recollects the circumstances indicated by Étude B in her mind, or practices the technique of planning an imaginary performance based on Étude B. In other words, it is Étude A that is to practice the technique of seeing (observing and perceiving) the current physical space, the score made to configure it is Étude B, based on which Étude C is created to practice the technique of seeing (recollecting) the image of the past or seeing (imagining, planning and estimating) the future image in a space of thought. The performer of Étude D performed in the gallery where Étude A, Étude C and Étude B are presented together practices the technique of making decisions upon concurrently seeing the physical space and the space of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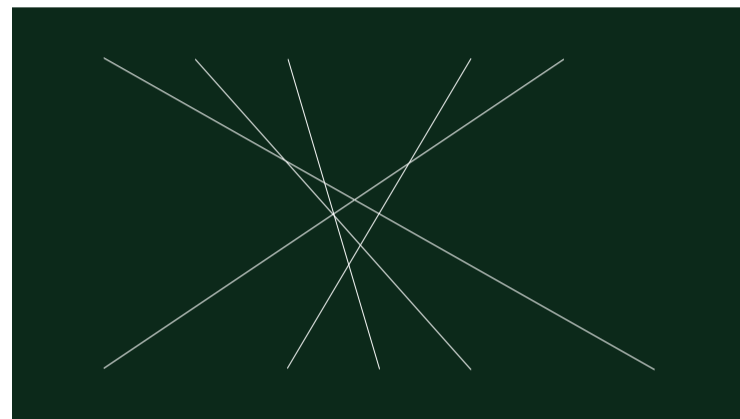
The intricate framework of Étude ABCD which is weaved so sophisticatedly and beautifully does not stop operating within the internal relationships that are closely established by Oh Min. Seven cubes that are elaborately placed in the gallery where Étude A and Étude C are synchronized side by side and Étude B is repeated providing a frame to be able to interpret what the subtle facial expressions and behavioral changes that appear in the two screens are about to indicate, assume the existence of potential performers. What the audience grasp from the films of Oh Min where independent scenes are connected like a collage, instead of unfolding specific stories based on linguistic logic is "thinking face" which is subtly expressed on the closed-up faces.⁶ The thinking face, or facial expression of thoughts, revealed on the face of performers in each and every moment of seeing the currently physical space, or the images of the past or the future in the space of thought, intriguingly enough, gets repeated implicitly on the face of the audience that view the films. In this moment, the audience unknowingly become potential performers, and end up practicing the technique of awareness that Oh Min suggested.⁷ The unexpected relational network is loosely added on around the tightly planned world of Oh Min.

Let's go back to an étude. An artwork is a byproduct of times, through which, we can interpret the then epochal circumstances. The same logic applies to an étude which is inevitably linked to performers. Through an étude which pushes the physical limitation in a relationship with musical instruments to the extreme, we can take a glimpse of what composers and each epoch demanded from performers, and what kind of changes the epochal flow has gone through. Oh Min's attempt to suggest practicing the technique of awareness with an étude as a trigger might be not so different from this. Thus, we end up asking more and mulling over more. Why is it that the technique of awareness through Étude ABCD is being demanded? What does practicing the technique of awareness aim to perceive ultimately? What is the image of the current times she wanted to seize through the practice of the technique of awareness? What is in the "astra" which Oh Min wanted to reach at the end of the day?

— Kim Yunk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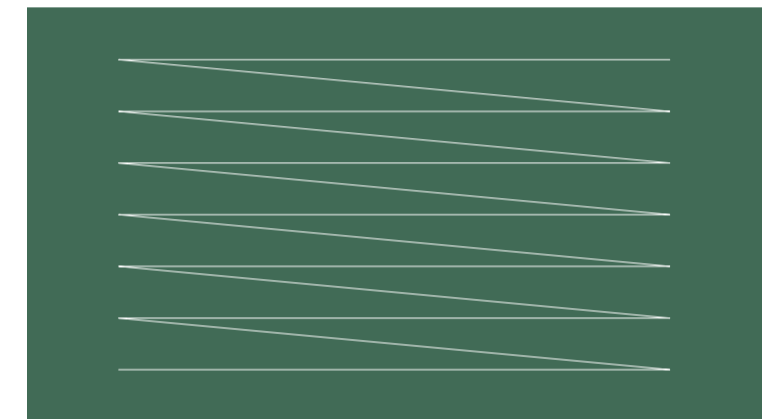
6. Oh Min raised a discourse on the "thinking face" in her previous works titled Audience (2017) and Performers (2017).
7. True, not all the audience practice the technique of awareness by becoming potential performers, and it is so natural that not all potential performers successfully practice the technique of awareness. In fact, a successful practice might seem antinomic per 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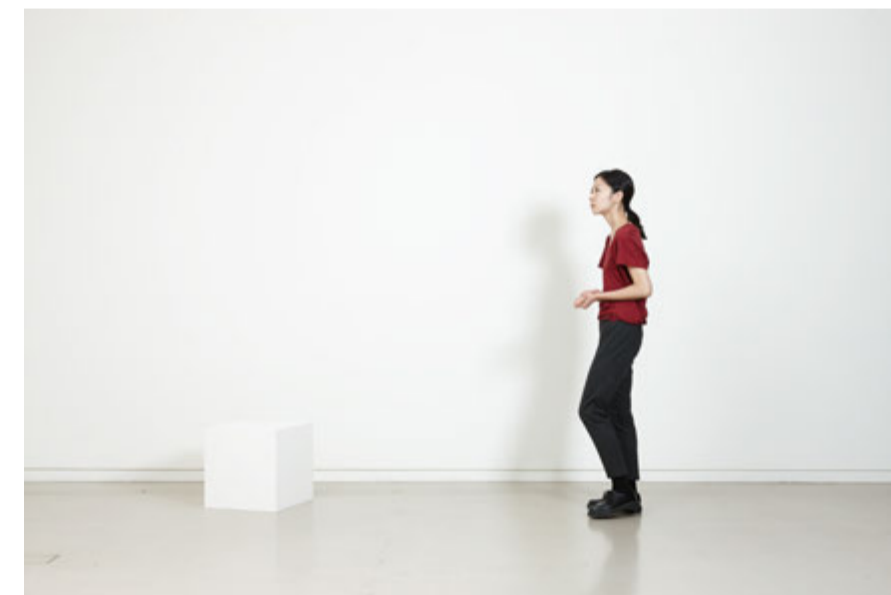


Another concrete wall.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the wall is a part of the same building
or buildings we saw just before.
But most likely it is.
The border between the ground and
the wall draws a clean horizontal line.

Look at two people on the stone stairs.
One is higher, one is lower.
Watch what is happening
between the two.
I don't see your face, but still read
what you are looking at
from the movement of your eyebrows.









연습면 B, 연습면 C, 연습면 A Étude B, Étude C, Étude A (from the left)
Installation view

에르메스 재단

에르메스 재단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기술과 창의성을 연마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공연예술의 “뉴 세팅” 프로그램, 현대 미술의 전시와 작가들의 레지던시, 사진의 “이미전” 프로그램, 장인 발굴과 숙련을 위한 “매뉴팩처-스킬 팩토리”와 “스킬 아카데미” 등 기술, 창의력, 전달에 전반적으로 주목하는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러한 주요 목표를 반영하는 업무 기관들을 위한 전세계적 지원 프로그램인 “H3”, 미래의 세대를 위해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규정한다”라는 재단의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www.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supports men and women seeking to learn, perfect, transmit and celebrate the creative skills that shape our lives today and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 operates eight major programmes with a combined focus on skills, creativity and transmission: *New Settings* for the performing arts, *exhibitions and artists' residencies* for the visual arts, *Immersion* for photography, *Manufacto – the Skills Factory* and our *Skills Academy* for the discovery and perfection of artisan trades. *H3* is the Foundation's worldwide programme of support for organizations whose work reflects these central aims. Our *Biodiversity* programme enacts a core commitment to protect fragile ecosystems for future generations.

The Foundation's diverse activities are governed by a single, over-arching belief: *Our gestures define us.*

**ATELIER
HERMÈS**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예술 그 자체보다 더 흥미로운 삶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적 가치를 전파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작가들에게 수준 높은 창작 지원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미학적 전망과 시대적 문제의식에 대한 비평적 입장에 열려 있으며, 현대미술의 가치와 그 영속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여, 장르 구분 없이 독창적이며 시대를 앞서가는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해 브뤼셀, 도쿄, 싱가포르에 소재한 갤러리들의 전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ATELIER HERMÈS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Tokyo, and Singapore.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t 02.3015.3248
f 02.545.1224

월요일 - 화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수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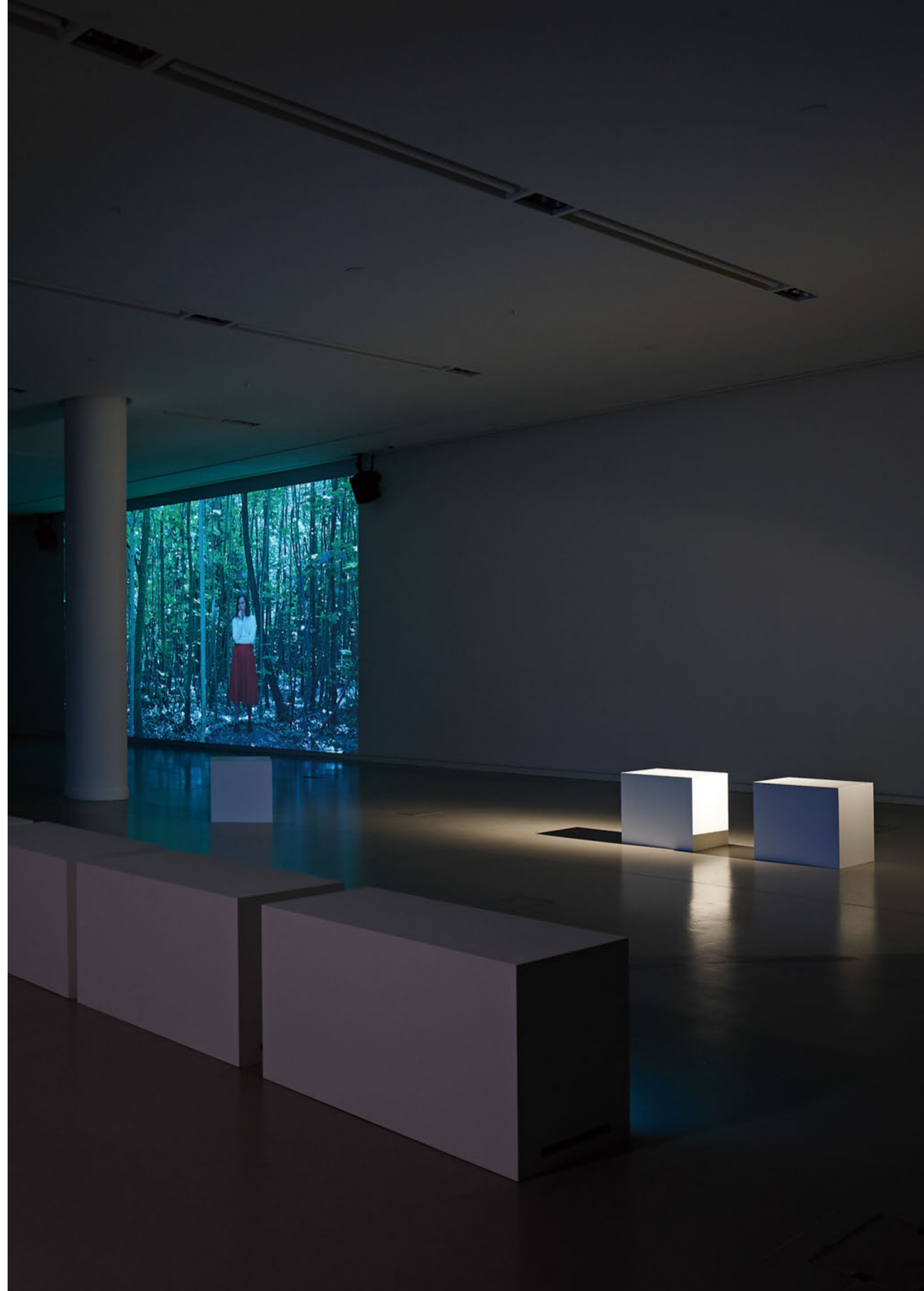
목요일 -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2시 -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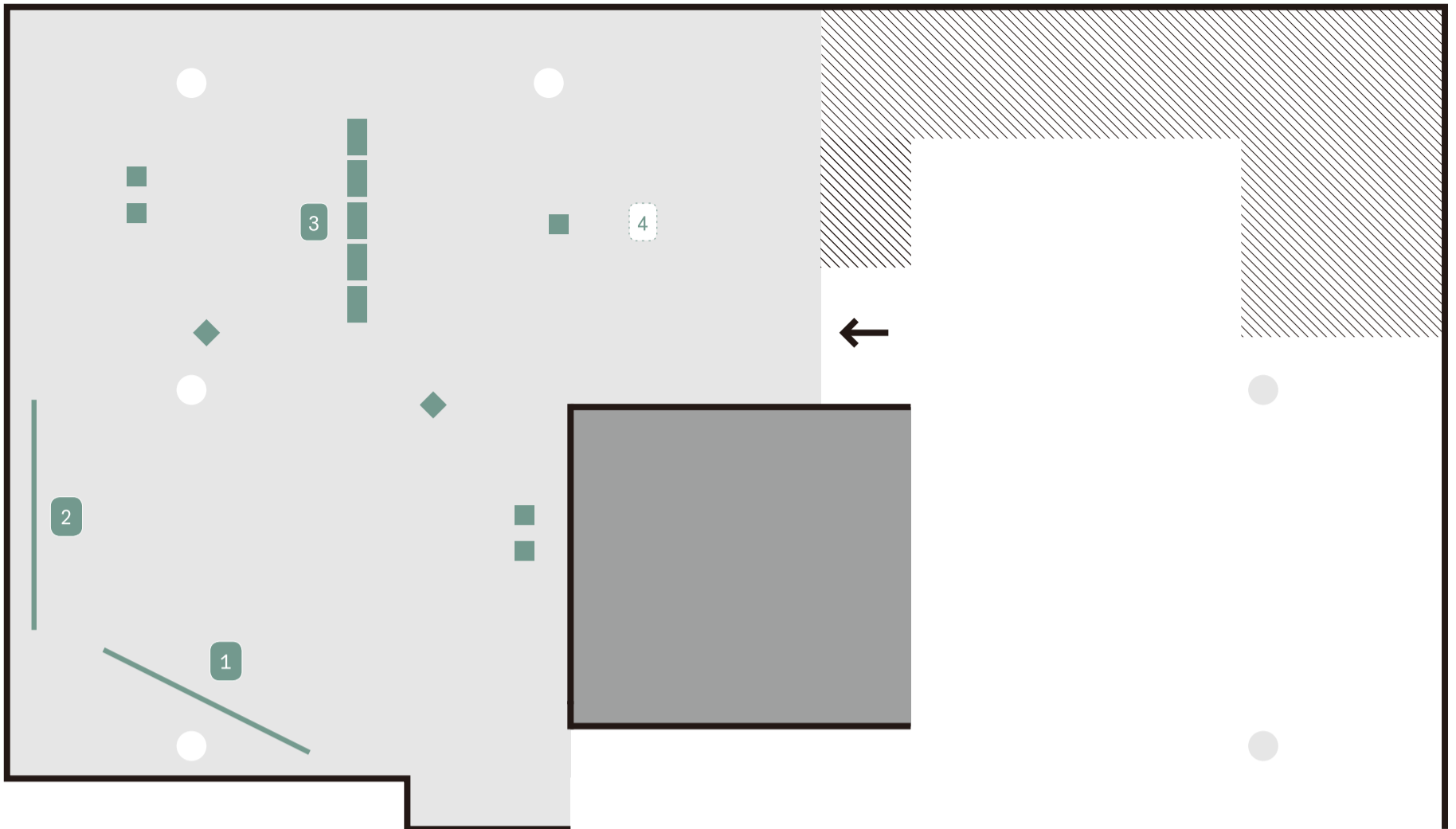
* 9월 17일, 추석(9월 23, 24일): 휴관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t 82.2.3015.3248
f 82.2.545.1224

Monday to Tuesday: 11 AM to 7 PM
Wednesday: Closed
Thursday to Saturday: 11 AM to 7 PM
Sunday & public holiday: 12 PM to 7 PM
* September 17 and Chuseok (September 23 & 24): Closed





연습연 ABCD Étude ABCD

2018, Film installation and live performance

Director of photography

Pauline Sicard

Performer

Choi Seungyoon, Olivia Liroet, Tess Maliczak, Sabine Riviere

Producer

Jordane Oudin

Production

Hippocampe Production

Production manager

Rossella Cecili

Sound

Hong Chosun

1. 연습연 C Étude C
2. 연습연 A Étude A
3. 연습연 B Étude B
4. 연습연 D Étude D

ATELIER
HERMÈS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MAIS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82-2-3015-3248

Copyright © 2018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the contributor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e contents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연습곡

2018. 9. 6 – 11. 4

라이브 퍼포먼스 연습연 D:
9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아티스트 토크:

9월 8일 토요일 오후 2 – 3시 30분

* 토크 대담자인 안무가 이양희의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및 예약: 02-3015-3248)

Étude

September 6 – November 4, 2018

Live Performance Étude D:

Wednesday, September 5, 7:00 PM

Artist Talk:

Saturday, September 8, 2:00 – 3:30 PM

* Lee Yanghee (choreographer) is invited for
the talk and the performance.
(RSVP: 02-3015-3248)